

토틀넘에 바르사까지... 한여름 축구 축제 개봉박두

30일 팀K리그-뉴캐슬 1차전·8월 3일 토틀넘-뉴캐슬 2차전
손흥민·양민혁 토틀넘 유니폼 입고 국내 팬들과 만나
바르셀로나, 31일 FC서울 8월 4일 대구FC와 차례로 대결
야말·레반도프스카·하피냐·래시포드 등 슈퍼스타 총출동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질주하고, 야말 라말이 화려한 드리블을 수놓는 장면이 한국 축구 팬들 앞에서 펼쳐진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토틀넘 홋스퍼가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번 방한은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로 펼쳐진다.
먼저 7월30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열리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에서는 K리그 울스타적인 '팀K리그'와 뉴캐슬이 대결한다.
팀K리그는 팬 투표로 선정되는 팬 일레븐 11명과 영플레이어 해당하는 '쿠팡영플' 1명, 감독 및 코치가 추가 선발한 K리그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됐다.
현재 K리그1 득점 선두(12골)인 전북 현대 전진우를 비롯해 이동경(김천), 세징야(대구), 오베르단(포항), 박진섭(전북), 김영권, 조현우(이상 울산) 등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뉴캐슬은 2024-2025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 챔피언으로, EPL은 5위로 마친 명문 구단이다.
2018-2020년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이 뛰었고, 최근 수원 삼성 출신의 2007년

생 공격수 박승수가 입단을 앞뒀던 국내 팬들에 진속하다.
뉴캐슬이 한국을 찾는 건 구단 역사상 처음이다.
알렉산더 이삭, 산드로 토날리, 브루노 기마랑이스, 키어런 트리피어 등 스타 플레이어가 된다.
8월3일 오후 8시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토틀넘과 뉴캐슬이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을 벌인다.
지난해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에도 참가해 한국을 방문했던 토틀넘은 1년 만에 국내 팬들 앞에 다시 선다.
2024-2025시즌 캡틴 손흥민이 이끈 토틀넘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정상에 올라 17년 만에 메이저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특히 손흥민은 프로 커리어 첫 우승컵을 들어 더 큰 감동을 줬다.
지난해 7월 토틀넘 입단을 확정된 뒤 팀 K리그 소속으로 토틀넘과 맞붙었던 양민혁은 올해는 토틀넘 유니폼을 입고 한국을 찾는다.
챔피언십(2부리그) 퀸즈파크 레인저스(QPR) 입대를 마치고 돌아온 양민혁은 프리시즌 훈련을 소화 중이다.
쿠팡플레이는 매치뿐만 아니라 선수들



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오픈트레이닝도 연다.
팀K리그와 뉴캐슬은 경기 하루 전인 2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공개 훈련을 한다.
손흥민과 임대를 마치고 복귀한 양민혁이 참여하는 토틀넘 훈련은 8월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챔피언 FC바르셀로나도 같은 기간 한국 땅을 밟

는다.
바르셀로나는 3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1 FC서울과, 8월4일 오후 8시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차례로 맞붙는다.
바르셀로나의 방한은 2010년 K리그 울스타와의 대결 이후 15년 만이다.
아시아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는 바르셀로나는 애초 27일 일본을 찾아 리그 팀인 비셀 고베와 자선경기를 치르려고 한

지시간 24일 오전 일본으로 떠날 참이었다.
그러나 주최 측 계약 위반으로 일본 투어는 전격 취소됐다.
다행히 국내 주최 측은 "방한 일정에는 영향이 없다"며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프로모터사 디드라이브가 바르셀로나와 아시아투어 계약을 체결해 서울 경기는 제너시스BBQ와 공동 주관하

고, 대구 경기는 대구광역시와 공동 주최를 맡았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출신의 2007년생 축구 천재 야말을 비롯해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브라질 대표원인 하피냐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에서 임대온 마커스 래시포드 등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이번이 없는 한 한국 팬들 앞에 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입자 지원 3년 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입자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안세영 기권패 탈락... 배드민턴협회 "피로 누적·부상 염려로 기권"

한웨와의 준결승 2게임 도중 기권... "세계선수권 위해 무리하지 않기로"

'슈퍼 1000 슬램'에 도전했던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중국오픈 준결승 중 무릎 부상으로 기권하며 탈락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6일 중국 장저우의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 3위 한웨이(중국)와의 대회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2게임 중 기권패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세계 최강으로 발돋움했다.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슈퍼 1000), 인도오픈(슈퍼 750), 오를레앙 마스터스(슈퍼 300), 전영오픈(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슈퍼 1000), 일본오픈(슈퍼 750)을 석권하며 시즌 6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를 제패하면 올 시즌 슈퍼 1000 4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이른바 '슈퍼 1000 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안세영은 무릎 부상으로 준결승에서 기권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안세영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무릎 부상을 앓은 바 있다.

그는 내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2025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다시 정상을 노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은 피로 누적 상태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더 큰 부상에 대한 염려가 있는 상태"라며 "다음 대회인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해 무리하지 않으려고 기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1게임 초반은 안세영이 주도했다. 0-0, 4-5, 7-6 상황에서 3연속 3점을 뽑으며 10-6까지 치고 나갔다.

하지만 서브 미스와 네트 불운이 겹치며 10-11로 역전을 허용했다.

안세영은 경기 중간 무릎을 움켜쥐며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안세영은 19-18로 다시 앞섰지만,

를 위해 무리하지 않으려고 기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1게임 초반은 안세영이 주도했다. 0-0, 4-5, 7-6 상황에서 3연속 3점을 뽑으며 10-6까지 치고 나갔다.

하지만 서브 미스와 네트 불운이 겹치며 10-11로 역전을 허용했다.

안세영은 경기 중간 무릎을 움켜쥐며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안세영은 19-18로 다시 앞섰지만,

내리 4실점을 하며 19-21로 1게임을 뺏겼다.

2게임도 치열한 분위기로 펼쳐졌다. 안세영은 선취점을 내줬지만 6-6까지 쫓아갔다.

그러나 한웨이 연속 5점을 뽑으며 찬물을 끼얹었다.

안세영은 6-11에서 무릎 부상에 따른 기권을 선언해 한웨이에게 패배했다. /뉴시스

KIA 이범호 감독, 주루 방해 판정에 격렬 항의... 퇴장 조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이 주루 방해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조치됐다. 이 감독은 26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6회말 격렬하게 항의하다 퇴장당했다.

KIA가 3-6으로 끌려가던 6회말 무사 1루에서 롯데 고승민이 기습번트를 쳤다. 타구를 잡은 KIA 투수 이도현이 1루로 송구했으나 타자 주자 고승민의 발이 더 빨랐다. 이 사이 1루 주자 황성빈은 2루를 돌아 3루까지 노렸다.

KIA 1루수 변우혁은 황성빈을 잡고자 3루로 송구했고, 3루수 패트릭 위즈덤이 공을 받아 황성빈을 태고했다.

3루심은 세이프를 선언했다. 위즈덤의 원발이 황성빈의 주루를 방해했다는 판단이었다.

KIA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온 후 더그아웃에서 뛰어나온 이 감독은 3루 쪽에서 여러 동작을 취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에 항의할 경우 퇴장이 선언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감독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KIA 지휘봉을 잡은 이 감독이 퇴장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시즌 퇴장은 16번째, 감독 퇴장은 7번째다. /뉴시스